

아파도 맞아도...보호 못받는 교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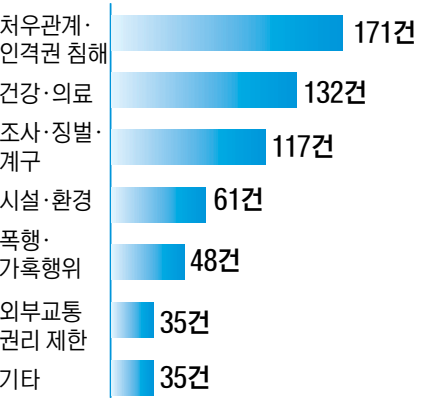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 진정 559건

의료조치 미흡 96건, 교도관 폭행·모욕 73건 등

최근 2년8개월간 광주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로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가 600건에 달했다. 의료조치 미흡·부당한 징벌·서신 불허 등의 인권침해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인권침해로 인한 수용자 진정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인권사무소에는 총 59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2014년 237건, 2015년 225건, 올해 8월까지 137건이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처우관계·인격권 침해’가 171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의료’ 132건(22%), ‘조사·징벌·

계구’ 117건(19.5%), ‘시설·환경’ 61건(10.2%), ‘폭행·가혹행위’ 48건(8%), ‘외부교통권리 제한’ 35건(5.8%)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의료조치 미흡이 96건, 교도관 등에 의한 폭행이나 모욕·폭언, 반말과 욕설 등의 인권침해가 73건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신검열·진정방해·영지불허·접견방해 등 교도관들의 부적절 행위로 35건이나 접수됐다. 수용거실 내 화장실 개방으로 인한 수치심, TV시청 불허, 선풍기 미비치 등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의 처우관계·인격권 침해는 2014년 86건에서 지난해 48건, 올해 37건으로 감소추

■ 최근 3년간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 현황



세다. 또 시설·환경도 21→29→11건으로, 폭행·가혹행위 19→21→8건으로, 조사·징벌·계구에 의한 인권침해 38→49→30

건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반면 서신검열 등 외부교통권리 제한으로 인한 인격침해 사례는 14→8→13건으로 증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9건이나 발생했다. 9건 중 5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 접수가 됐고, 4건은 인권위 침해조사과로 접수됐다. 금태섭 의원은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교화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며 수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비위 교사 잇단 파면·해임

비위에 연루된 교사들이 잇따라 파면·해임되고 있다.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남구의 모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 지원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A중 교감과 B중 교사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중 교감의 경우 광주시의회의 의장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전시의회의장의 고교 동창인 브로커 이모(54)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교육청은 또 학교 소유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사용한 특정학교 교사 D씨도 같은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7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 운암3단지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들이 단지 내 학교 용지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운암3단지재건축조합 ‘초교 배치’ 항의 집회

조합 “사전 약속 지켜야”...광주교육청 “위치 재선정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는 운암3단지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27일 광주시교육청 앞 마당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성실한 협의와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집회에서 재건축조합 측은 “시교육청의 과다한 요구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2차례 유보됐다”며 “구역지정 고시 때 교실 증설과 통학버스 제공 등 세부사항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9월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 301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에 포함된 경양초등학교 증설과 관련한 내용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조합 측이 기존 계획보다 500세대가 늘어난 3500세대로 변경돼 오자 일조권 문제를 들어 조합 측에 학교 부지를 이전하고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 일조권이 문제가 되자 재건축조합은 증설 계획을 보완해 시교육청에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심의가 유보됐다.

장광길 재건축조합장은 “신축할 2개동을 빼내서 사실상 일조권을 위한 법정 조건을 맞췄다”며 “일조권은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 가능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배치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교를 근린공원으로 옮겨 짓고 이를 다시 기부채납해달라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하면 세대당 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학교시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과밀학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학교 위치를 다시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5
해질녘 18:21

달돋이 03:34
달지름 16:55

장마 같은 가을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 10~80mm.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2/26	보성	비	22/24
목포	비	22/24	순천	비	22/26
여수	비	23/25	영광	비	22/25
나주	비	22/26	진도	비	21/24
완도	비	22/25	전주	비	21/24
구례	비	22/25	군산	흐림	21/24
강진	비	22/25	남원	비	22/25
해남	비	22/25	속산도	비	20/21
장성	비	21/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1.0~2.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2.0~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2.0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남부	앞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17	05:43
	12:32	17:52
	07:35	01:25
여수	19:52	13:29

◇주간 날씨

29(목)	30(금)	10/1(토)	2(일)	3(월)	4(화)	5(수)
20/26	18/23	19/24	20/25	20/25	19/26	17/25

전남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해남 50대

10월까지 모기 조심

전남도는 지난 22일 전남에서 올 들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기 회피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지난 6월 의식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해당 병원은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의식저하 소견을 보낸 결과 항체 양성 소견이 나왔고, 22일 추가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이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모기에 의한 일본뇌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 홍보 및 매개모기 방제를 위해 동물 축사 및 물 웅덩이 등 작은빨간집모기 서식지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시·군

에 긴급 시달렸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10월까지의 각종 질병 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야외활동 및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뇌염 예방 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완중 리스트’ 이완구 2심서 무죄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중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나름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피란 동해바다-환금빌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를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행사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체 승이클럽	거제 아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9-1)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카티드/오션월드/컨트리클럽) - 소노펠리체 - 엘피노 골프 앤 리조트 -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아리나 - 영월호텔 여수 - 영월호텔 고양

패밀리/스위트 납입계획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정 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 - 900 - 997807 국민은행 614701 - 04 - 002581 신한은행 295 - 05 - 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CHANGHAN WEARING AIR COOPERATIVE